

“금속노조, 투쟁 현장에서 노조법 개악 저지 총파업 선언”

살리자 대우버스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열어 ... “반드시 돌아간다. 우리는 복직예정자다”

금속노조 한 사업장의 구조조정 분쇄, 해고 철회 결의대회가 아니었다. 금속노조 2020년 하반기 투쟁 선포대회였다.

문재인 정권과 자본의 노조법 개악에 맞선 총파업을 선언하는 대회였고, 코로나 19를 틈타 노동자를 해고 살인하는 자본에 경고장을 날리는 자리였다. 현대차 자본의 원청 책임을 묻는 집회였고, 재난을 이용해 먹고 튀는 외국 자본을 심판하는 성토장이었다.

금속노조가 10월 21일 울산 언양 대우버스 공장에서 ‘끝내자 구조조정, 살리자 대우버스,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전국의 금속노조 각 현장 대표자와 간부들이 공장으로 몰려들었다. 코로나 재난을 이용한 국가의 민중 통제와 노동자 억압 국면을 허무는듯한 들뜬 열기가 공장을 감쌌다.

금속노동자들은 손에 손에 들고 온 쌀 포대와 라면상자를 157일째 해고 철회와 공장 살리기 천막농성 중인 대우버스·대우버스사무지회에 전했다.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서진이앤지 조합원들은 금속노동자들에게 선보일 사전 공연 준비에 집중했다. 진주에서 올라온 노래패 ‘맥박’과 서울에서 달려온 ‘선언’ 동지들이 무대 옆에서 목과 몸을 풀고 있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대우버스 공장과 공단 넘어 뒷산을 울리는 함성으로 금속노동자대회를 시작했다. 박재우 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



버스지회장과 최지훈 대우버스사무지회장이 전국에서 모인 금속노동자를 환영하며, 결의 발언을 남겼다.

박재우 지회장은 “355명 해고자 모두 조합원이다. 비조합원은 한 명도 없다”라며 백성학 영안모자 자본의 악랄한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했다. 박 지회장은 “부당해고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금속노조와 함께 반드시 승리해 공장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우리는 복직 예정자이다”라고 선언했다.

“형언할 수 없는 연대, 기억하겠다”

최지훈 지회장은 “형언할 수 없는 금속노동자들의 고마운 연대를 기억하겠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노조 각 지부·지회 대표자들이 두 지회장에게 투쟁 기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대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은 여러 경로로 노조법 개악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라고 상황

을 설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산별노조를 겨냥한 법이다, 금속노조의 손, 발, 입을 묶는 법이다”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노동법 개악을 당해 고통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당하지 않겠다”라고 결의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은 14일 중앙위원회와 2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환노위 노동소위 개악안 상정 예고 시 주야 2시간 파업 방침을 확정했다”라며 “조합원의 명령으로, 온몸으로 총파업 사수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현재 대우버스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이 나라 노동자와 산업을 살리는지 금속노조와 백성학이 만나 국민 앞에서 솔직하게 상식선에서 얘기해보자”라며 언론에 공개토론회 편성을 요청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조의 투쟁으로 올바른 판결과 판정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부 에브이 오카본코리아지회가 승리해 현장 복귀했다”라며 “금속 투쟁사업장 전체를 모아 전선을 만들어 현장으로 돌아올 날까지 조합원을 믿고 당차게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금속노동자들은 대우버스 현장에 설치할 ‘구조조정 분쇄, 해고 철회, 대우버스 살리기’ 등의 요구를 담은 소원지를 묶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대우버스·대우버스사무지회 조합원들은 공장을 떠나는 금속노동자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금속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악 저지 투쟁 현장에서 만나자며 두 손을 꼭 잡았다.

파렴치 두산 · 몰염치 산켄, 금속노동자만 죽인다

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 · 한국산연지회 상경투쟁 ... “자본 앞에 법과 상식은 휴짓조각”

두산중공업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휴업 판정에도 불구하고 강제 휴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지노위 판결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는 박정원, 박지원 회장 일가가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국가 행정기관 판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즉각 부당 휴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는 무기한 상경 투쟁에 나섰다. 지회는 서울 곳곳에서 거점 선전전을 벌이며 일본 산켄자본의 위장 폐업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0월 21일 서울 중구 두산타워 앞에서 ‘부당 휴업 철회, 지노위 판결 즉각 이행, 두산그룹 오너 일가 퇴진, 두산그룹사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두산중공업지회는 “시간이 없다. 올해 정년을 맞이하는 조합원들이 명예롭게 현장을 떠날 수 있도록 당장 부당 휴업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 21일 사무직과 생산직 노동자 350여 명에게 12월 31일까지 휴직하라고 일방 통보했다. 두산중공업은 2월부터 5월까지 희망퇴직을 받아 노동자 1천여 명을 해고했다.

노조 두산중공업지회와 사무직지회는 사측의 일방 휴업 조치에 맞서 경남지노위에 부당 휴직 구제신청을 냈다. 경남지노위는 사무직지회와 두산중공업지회의 구제 신청에 대해 지난 7월 30일과 8월 26일에 각각 ‘부당 휴직이 맞다’라고 판정했다.



강웅표 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이날 결의대회 대회사에서 두산중공업을 향해 법과 상식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강웅표 부지부장은 “두산중공업은 박지원 회장이 취임하면서 최소한의 법과 사회 상식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번 돈은 회사가 다 가져가고, 30년 동안 일한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쫓아냈다. 강제 휴직 당한 노동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이성배 노조 두산중공업지회장은 “박정원, 박지원 회장 일가는 수천억 원을 급여니, 배당금이니 하며 가져갔다. 회사는 이들의 부실 경영으로 어려움에 부닥쳤다”라고 성토했다.

문제인 정부, 자본에 눈먼 돈, 노동자 해고 방관

이성배 지회장은 “문제인 정부가 두산 재벌의 무능하고 부실한 경영에 공적자금 투입으로 면죄부를 줘 노동자들이 찬 바다에 나왔었다”라며 “두산 재벌이 부당휴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청와대로 가서, 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인지 묻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희열 노조 두산중공업사무직지회장은 “사측은 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직 노동자와 협의 없이 구조조정을 자행했다. 경영이 어렵다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정리해고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꼬집었다.

두산중공업 사무직 노동자들은 사측이 사무직 노동자 111명을 유휴인력이라며 강제 휴직시키자 지난 7월 두산중공업사무직지회를 만들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강제 휴직 당한 정원만 조합원은 “업무량이 많을 때 며칠씩 밤잠을 못 자며 일했다. 수개월 동안 하루 3시간씩 자며 일한 적도 여러 번”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원만 조합원은 “휴직자 중에 기술의 장인이라는 명칭이 많다. 경영 위기가 이 노동자들의 잘못인가”라며 “일터로 돌아가 명예롭게 일할 수 있도록 당장 휴업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는 10월 21일부터 무기한 상경 투쟁에 돌입했다. 지회는 일본대사관과 산켄코리아영업소, 국회, 한국산연 대표이사 집 앞 등에서 거점 선전전을 벌인다고 밝혔다.

노조 한국산연지회는 “외국 자본의 기업 철수에 아무 대응을 못 하는 문제인 정부와 자국 기업의 비도덕 경영을 방관하는 일본 정부, 노동 탄압에 앞장서는 산켄자본을 심판하겠다”라고 밝혔다.

일본 산켄전기는 지난 1973년 한국산연을 설립한 뒤 제곱미터당 900원의 임대료를 내는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받으며 이윤을 남겼다. 산켄자본은 한국산연에 생산설비를 투자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창선시트라는 LG그룹 가족 기업에 160억 원을 몰래 투자하며 생산을 외주화했다. 산켄자본은 47년 역사의 회사 폐업을 10분 만에 결정했다. 한국산연에 금속노조 지회가 있기 때문이었다.